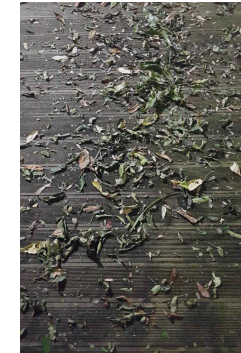


더 읽어 보면 좋을 책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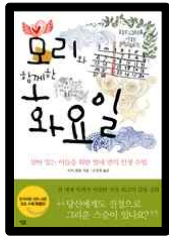
- EBS <명의> 윤영호 박사가 말하는 삶의 아름다운 마무리
윤영호. 나는 죽음을 이야기하는 의사입니다. 컬처그라퍼, 2012.
- 신경외과 의사가 영혼, 신, 사후세계의 실재를 입증한 실화
이븐 알렉산더. 나는 천국을 보았다. 고미라 역. 김영사, 2013.
- 응급의학과 의사가 쓴 죽음과 삶, 그 경계의 기록
남궁인. 만약은 없다. 문학동네, 2016.
- 안락사 문제를 통해 삶의 의미를 돌아보다
조조 모에스. 미 비포 유. 김선형 역. 살림출판사, 2013.
- 20년 동안 죽음을 배운 스님의 값진 죽음에 관한 이야기
능행 스님. 숨: 죽음을 통해서 더 환한 삶에 이르는 이야기. 마음
의숲, 2015.
- 서른여섯 젊은 의사의 마지막 순간
폴 칼라니티. 숨결이 바람 될 때. 이종인 역. 흐름출판, 2016.
- 죽음 앞에 선 인간의 존엄과 의학의 한계를 고백하다
아틀 가완디. 어떻게 죽을 것인가. 김희정 역. 부키, 2015.
- 죽음 준비교육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다
김건열, 정현채, 유은실. 의사들 죽음을 말한다. 북성재, 2014.
- 삶과 죽음의 궁극적 의미에 대한 탐구
레프 니콜라예비치 톨스토이. 이반 일리치의 죽음. 이순영 역. 문예
출판사, 2016.
- 죽음, 어떻게 받아들이고 준비할 것인가
헨리 마시. 참 괜찮은 죽음. 김미선 역. 더퀘스트(길벗), 2016.



삶과 죽음

● **모리교수가 전하는 삶과 죽음에 관한 강의**

미치 앨봄.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 살림출판사, 2010.



루게릭 병에 걸려 죽음을 앞두고 있는 노교수와 제자가 매주 화요일에 만나 인생에 대해 나눈 대화를 담은 책. 이 책은 사랑, 일, 공동체사회, 가족, 나이듦, 용서, 결혼 등에 대해 노교수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통해 삶의 참의미를 돌아보고, 두려워하거나 머뭇거리지 않고 삶과 죽음을 껴안을 수 있도록 통찰을 제공한다.

● **죽음 직전의 사람들이 전하는 삶의 진실과 교훈**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 데이비드 케슬러. **인생 수업**. 류시화 역. 이레, 2006.



평생 죽음을 연구한 정신의학자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와 제자 데이비드 케슬러가 죽음 직전의 사람들을 인터뷰하여 살아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진솔하게 전한다. 삶과 사랑, 관계와 상실, 사랑과 분노, 용서와 치유에 대한 진실한 가르침, 지혜로운 통찰을 담고 있는 책.

● **삶의 마지막 순간에서의 가르침**

서원 B. 놀랜드. **사람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는가**. 명희진 역. 세종서적, 2016.

수십 년간 죽음을 지켜본 의사인 저자는 생명의 자연스러운 과정으로서의 죽음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죽음을 대한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이 책에서는 저자의 휴머니즘, 경험에서 우려난 풍부한 임상 사례와 인간의 삶과 죽음에서 나타나는 충격적인 진실에 대한 가감 없는 묘사와 생생한 표현, 그리고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질병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만날 수 있다.



● **삶의 의미를 찾아서**

빅터 프랭클. **죽음의 수용소에서**. 이시형 역. 청아출판사, 2005.

나치의 강제수용소에서 고통을 겪으면서도 삶의 의미를 잃지 않고 인간 존엄성의 승리를 보여준 프랭클 박사의 자전적인 체험이 담긴 책. 저자는 그 체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독특한 정신분석 방법인 로고테라피를 창시한다. 그에 따르면 인간에게 실제로 필요한 것은 정신적인 역동성, 즉 '긴장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가치 있는 목표, 자유의지로 선택한 그 목표를 위해 노력하고 투쟁하는 것'이라고 한다.

